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39호 / 2026년 09월 14일 / FAX(031)680-6865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노조에는 선 넘고, 정회장에게는 침묵

- 잘못에 대한 책임,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지난 주 우리사주조합 직무대행 명의의 입장은 가히 충격에 가까웠다. 우리사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직무대행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았다.

아니,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 사측의 속내가 사주조합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주식 때문에 안전문제는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한다. 주식을 위해 현장은,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

■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면, 그것이 정당한 줄 안다.

금속노조가 국민연금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분명하다.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경영진의 문제라면 이후 이사 선임할 때 2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했다. 잘못을 한 경영진은 다시 선임하지 말아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였다.

범죄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것이 용인되듯,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면, 결국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 불법, 편법 자녀 승계가 더 큰 주가 하락의 원인이다.

정말 주가 하락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정몽원 회장을 둘러싼 공정위 조사에 주목해야 한다. 홀딩스의 자금을 자녀 승계 과정에 유용한 의혹은 배임 문제까지 불거졌다. 그룹 최고 결정권자의 불법과 편법적 행보가 기업가치와 주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에 묻고 싶다. 정몽원 회장 문제로 주가가 떨어질 때, 왜 ‘3세 승계’ 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는가? 정몽원 회장에게는 침묵하면서, 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는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가?

26년 8월부터 시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후 현장은 안전한가

평택공장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후 생산 설비에 안전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작업중지 명령만을 해제할 목적이었기에, 설치한 안전장치의 문제점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 LOTO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사측도 이를 인정하고 10월부터 평택공장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인터록이 곧 안전’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계는 언제든 고장나고,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록 등 안전조치가 끝나면 실제 생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번 중대재해를 통해 우리는 사측이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10년 전 유사 사고를 통해 교훈을 잊지 않았다면,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회의원실의 요구로 노동부가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공장에서 최근 6년간 21건의 끼임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감’ 이라 함)의 권한은 현장의 안전과 보건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누가 명산감이 되는가에 따라 현장의 안전이 지켜지는지, 형식에 머무르는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명산감 제도는,

1995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추천된 사람의 임명 여부는 노동부의 판단과 사측의 의견도 필요했다. 그러나 올해 2026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8월부터 적용되어 추천된 명산감을 노동부는 임명해야 한다.

명산감 권한은,

회사 자체점검, 산재예방 계획 수립 참여, 법 위반 개선 요구, 감독기관 신고, 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참여 등 현장의 안전 문제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한마디로 명산감은, ▶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 개선을 요구하고
▶ 법 위반을 신고하고 ▶ 위험하면 작업 중지를 요구한다.**